

김동수 교수의 요한이 말하는 예수

9강 예수의 고별 설교

I. 들어가는 말

1.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1-12장에 나타난 영광의 죽음을 향해 전진하는 예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을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2. 오늘은 요한복음 13-16장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고별 설교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3. 요한복음 13-16장 구조 한눈에 보기

예수의 세족식과 그 의미(13:1-30)

1. 세족식의 신학적 의미(1-11절)
2. 세족식의 윤리적 함의(12-20절)
3. 가룟 유다의 배반 예고(21-30절)

예수의 고별 설교(13:31-16:33)

1. 고별설교 1(13:31-14:31)
2. 고별설교 2(15:1-16:4a)
3. 고별설교 3(16:4b-33)

4. 오늘 공부할 내용 요지

- 1) 세족식은 예수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그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또 세족식은 문화를 굴레를 넘어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 2) 예수의 고별설교는 예수의 부재 예고에 따라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준 약속이다. 그 약속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기도의 특권을 주는 것이며, 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다.

II. 예수의 세족식과 그 의미(13:1-30)

1. 요한복음 1-12장에서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이들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2. 이제 13:1에 이르러 예수의 대화 상대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곧 그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3-17장에서 예수는 그의 제자들과만 상대해서 행동하고 가르칩니다.

3.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꼭 해야 할 행동과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첫째,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합니다. 요한은 이 예수의 행동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13:1) 여기서 예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 즉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이른 것을 압니다.

4.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와 세족식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11절에 보면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지, 베드로는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된다며 만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8절) 즉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 자신이 지실 십자가가 바로 제자들의 죄를 씻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예수의 말씀이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알려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3절)

5. 예수의 말을 오해하여 예수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온몸을 씻겨주는 것은 더 좋은 것이라 여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9절)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10절)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족식이 성례전과 같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죄 씻음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6.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함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복사, 본보기]을 보였노라.”(14절) 여기서 “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후포데이그마”(15절)는 “복사” 혹은 “본보기”라는 뜻입니다. 당시 노예도 이방인 노예만이 감당했던 타인의 발 씻기 모범을 선생이 제자에게 보여준 대로,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III. 고별 설교의 정황

1. 발 씻기 모범을 보이신 다음, 이제 예수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13:33; 14:3, 12, 28; 16:5, 7, 28).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13:33)

2.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가 떠나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근심합니다(14:1; 16:6, 22).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떠난다는 말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3. 고별설교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정황에서 한 고별설교입니다. 예수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14:1)

4. 그러면 예수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31-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해결책이 반복되는데, 핵심적인 것을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1) 내가 떠나가면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새 “보혜사”를 보내주겠다(14:16-17, 25-26; 15:26; 16:7-11, 12-14).

2)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특권을 주는데, 그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다(14:13-14; 15:7, 16; 16:23-24, 26).

3) 내가 떠나가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13:33-34; 15:17). 이것이 내 계명이다(14:21-24; 15:10, 12).

4)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지만(14:22; 15:18-19; 16:20, 33) 걱정하지 마라. 결국은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15:11; 16:22).

5. 다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고,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보혜사 약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IV. 보혜사의 정황과 보혜사의 뜻

1. 예수님은 자신의 부재에 대한 해결책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가 제자들을 떠나간다는 것, 곧 예수의 죽음입니다. 보혜사 약속은 이러한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면서 주어진 것입니다.

2. 예수는 자신이 떠나가는 곳을 “내가 가는 곳”(13:33, 36), “내 아버지 집”(14:2), 제자들을 위한 “거처”(14:3)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 것을 [아버지께] “가다”(14:28; 16:5), 혹은 “떠나가다”(16:7)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의 의미도 몰랐고 그의 부활도 예상하

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가 말한 이 말의 뜻을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떠나간다는 말에 그들은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14:1; 16:6, 20, 21, 22). 이에 대해 저자는 예수 부재를 맞닥뜨릴 제자들에게 예수 부재가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14:18), 보혜사가 오심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16:7).

3. 예수는 보혜사를 제자 무리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하는데 이것은 다섯 묶음의 보혜사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보혜사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로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1) 이 단어는 구약성서의 헬라어 역본인 칠십인 역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유대교 배경에서 이 단어의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2) 일반 헬라어에서는 법정 용어로 변호사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2:1에는 예수가 하늘 위 법정에서 신자들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6:7-11에서는 세상을 고소하는 검사의 역할이 보혜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본문에서는 이 단어의 법정적 의미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3) 어원적으로 살펴볼 때 수동형 의미로 이 단어는 ‘옆에 있는 분’, 도움이 등을 의미할 수 있고, 능동형 의미로는 위로하는 사람, 상담자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요한복음 보혜사 본문에는 보혜사의 수동형 의미와 능동형 의미가 다 통합니다.

4.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요한 문헌에만, 그것도 요한복음의 교별설교와 요한일서에 한 번(2:1)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문헌에서의 신학적 용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 본문에서 말하는 보혜사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보혜사의 기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예수가 보혜사를 보내준 약속의 구체적 내용이 됩니다. 보혜사의 기능은 모두 제자들과 관계된 기능입니다.

V. 보혜사의 기능 - 역할

1. 내주와 동행(14:16-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말하면서(13:33) 동시에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14:18).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14:19)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조금 있다 예수는 죽고, 또 그 조금 후에 예수가 부활할 것을 말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말하기보다는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혜사(14:17)의 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여기서 보혜사의 도래가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하고(14:16),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14:17)입니다. 한 마디로, 보혜사가 신자 안에 거하는 것과 신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동행(同行)입니다. 보혜사라는 헬라어 단어를 수동형으로 파자하면 ‘옆에 불리어 있는 분’인데, 이것에 대한 우리말의 적절한 표현으로 유승원 박사님은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동행이었듯이, 예수 부재 시에는 성령이 바로 동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의 기능이야말로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기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3) 14:16에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표현하는데, 이 말에는 예수가 원조 보혜사요, 성령은 예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또 한 분의”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와 동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이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6:66). 그렇다면 예수 부재 시, 곧 교회 시대에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계속 예수의 제자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성령이 제자들 안에 거한다(14:17)는 것은 신자와 보혜사가 예수와 제자들이 연대해서 자신의 본질을 형성하듯이 이제 교회 시대에는 제자들이 성령과 연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시대에 예수 없는 제자들은 의미 없는 무리가 되듯이, 교회 시대에 보혜사가 없는 제자 무리는 의미 없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2. 올바르게 기억하게 함(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선생이었습니다(14:25). 예수는 그들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표적을 일으키는 행위로, 또 그 표적의 의미를 알려주는 가르침으로 제자들의 선생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재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바로 자신과 똑같은 교사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제자들에게 교회 시대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입니다.

2) 여기서 보혜사의 가르침은 다름 아니라 예수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혜사의 역할은 제자들의 기억력을 좋게 하여 그동안 기억나지 않았던 예수의 말을 생각에 떠올리게 하는 것이란 말인가요? 요한복음에서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말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건물 성전으로 생각했으나, 예수가 부활한 후 성령이 온 뒤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곧 올바르게 이해하여 그것이 예수의 육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2:22).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요한은 “기억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바르게 기억하게 하는 역할은 바로 보혜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은 것도 “생각났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12:16), 이렇게 깨달은 것도 예수 부활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도 보혜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이러한 보혜사의 역할은 성경 기록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만 주어진 기능이었는가요? 만약, 이것이 단순히 데이터에 대한 기억력을 의미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한다는 것이 단순한 기억력의 복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은 일 세대 크리스천들만을 위한 것일 수 없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자신이 떠난 뒤에 불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을 말하면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16:4)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때, 또 그러한 박해가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선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냅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고까지 말하는 상황에서(16:2), 어떻게 이 정황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을 해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고별설교의 정황으로 볼 때 그러한 기억, 곧 해석을 신자 안에서 해 줄 분은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혜사의 역할은 초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3. 증언(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 본문에 기록된 보혜사의 기능은 예수가 정당함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여기서의 정황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세상이 박해하는 것입니다(15:18-16:4). 그리고 그 박해는 단순히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떤 육체에 해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를 죽인 것이 오히려 정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선언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2) 유대 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요(신 21:23),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에 처형된 사람은 중죄인이라는 사실과 이렇게 믿는 자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 무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는가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때 보혜사가 하는 역할은 예수가 정당함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며 그것을 성취한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이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4. 책망(16:7-11)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 본문에 제시된 보혜사의 기능은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의 내용은 보혜사와 세상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14:17의 내용과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 구절에서 말하는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보혜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직접 대면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이 생각하는 죄와 의와 심판이 잘못된 것임을 보혜사는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2)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는 데 반해, 보혜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세상은 예수가 떠나간 것, 곧 그가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 정당한 형벌이라고 보는 반면, 보혜사는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일이라고 알려줍니다(19:30). 또 세상은 예수가 심판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보혜사는 바로 예수가 십자가를 진 일은 세상의 임금 사탄이 심판받은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제시된 보혜사의 기능은 바로 앞에서 말한 보혜사의 증언의 기능(15:26)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5. 인도(16:12-15)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 지금까지 보혜사의 기능으로 제시된 것들은 제자들과 동행, 제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함, 예수가 정당함을 증언함, 제자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함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가 행한 일을 올바르게 기억하게 해 주는 것과 그가 행한 일이 정당하다고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2) 그런데 마지막 보혜사 본문을 말하기에 앞서 예수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16:12)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말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뒤 구절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을 제자들에게 하는 이는 바로 보혜사입니다.

3) 여기에 제시된 보혜사의 기능은 예수가 한 말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아울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16:13)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지금까지 제시된 보혜사의 기능에서 일 진보된 것입니다. 보혜사는 예수가 한 말을 해석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 일을 알려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혜사는 예수의 말씀을 단순히 되뇌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창조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할을 단순히 말씀을 조명하는 기능에만 한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로부터 듣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보혜사는 새로운 상황에 항상 적절한 말을 하는 그 자신의 기능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장래 일을 알리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황에 맞는 말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보혜사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6. 보혜사 본문의 의미와 교훈

1) 성령 보혜사는 예수 부재 시 지상에서의 원조 보혜사인 예수의 역할을 대신하는 분입니다.

예수가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말한 것은 제자들에게 근심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16:33). 예수는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이, 혹은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14:18). 그리고 그 약속의 총체는 한 마디로 자신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보혜사의 역할은 사실 모두 예수가 제자들에게 한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부재 시에는 제 이의 보혜사인 성령 보혜사가 그 일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옆에 있을 때 제자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처럼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이제 성령이 함께 있으니 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보혜사가 오면 더 나은 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하나의 육체로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좁았지만, 보혜사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각자에게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16:7-8). 심지어 예수는 제자들이 나중에 자신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14:12). 여기에 과장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사명을 주었듯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주었고, 그러한 일은 성령을 통해서 수행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성령 보혜사는 교회 시대에 새로운 상황에서 창조적으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제시된 보혜사 성령을 얼굴로 비유한다면 어떤 얼굴일까요?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예수만 증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수줍은 새색시’의 얼굴인가요? 그런 얼굴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그것을 위해 활동했듯이, 보혜사는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그의 말씀을 올바르게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3) 하지만 본문에 제시된 보혜사의 역할은 그 이상도 있습니다. 보혜사는 제자들이 새로운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한 말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제공하는 창조적인 인물로도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의 보혜사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새로운 곳에 가서 전도하게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영적 헬스 트레이너’(행 1:8)와도 닮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제자들을 내몰아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게 해주는 분일 뿐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신자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전진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VI. 적용과 실천

1. 우리는 오늘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에는 죄를 씻는 상징적 행위(신학적 의미)와 윤리적 함의(이렇게 섬기라)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2. 보혜사 가르침에는 두 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교회 시대에 예수가 공 사역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했던 역할을 지금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혜사가 신자들과 동행(同行)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했던 예수가 제자들에게 준 복(마 1:23)을 모든 개별 신자에게 주는 분입니다. 둘째, 보혜사의 역할은 예수가 정당함을 증언하고, 그의 말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분이라는 면에서 말씀에 대한 좋은 교사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창조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진보적 역할도 한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예수의 말씀과 별 상관없이 전쟁에 대한 예언 등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보혜사의 역할을 잘 못 본 것이고, 또한 보혜사의 역할을 예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해석자로 제한하여 "장래 일"을 말하는 보혜사의 창조적 역할을 제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보혜사는 보수적 역할과 진보적 역할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3.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의 고별기도'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